

# 전북, 전국체전 승전보

금 13·은 9·동 20개 등 획득... 펜싱에서 첫 금메달  
임병진, 역도서 3관왕 달성·문해진, 육상 단거리 2관왕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하며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전국체전 나흘째인 1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0개 등 총 42개의 메달을 획득, 순항하고 있다. 특히 대회 참가 전 예상 전력분석 결과 메달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종목과 선수(팀)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전북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펜싱에서 나왔다.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이나영(이리여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자전거 여교부 단체추발에 나선 전북체고 팀과 사격의 정우진(전북체고), 육상의 문해진(전북체고)과 김윤서(전북체고), 임채연(이리여고), 태권도 유희서(전북체고) 등도 금메달을 선물했다. 역도에서는 3관왕이 탄생했다. 순창고 임병진은 인상(136kg)과 용상(164kg), 합계(300kg)에서 1위를 했다. 육상 단거리에서도 2관왕이 나왔다. 문해진(전북체고)은 100m와 200m에서 가장 먼저 결

승선을 통과했다. 자전거 500m 독주 경기에서 나선 김혜진(전북체고)을 비롯해 씨름의 유원(신흥고), 육상 해머던지기 이채연(전북체고) 등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펜싱과 역도, 수영, 사격, 유도, 소프트테니스 등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 선수단은 남은 경기에서도 많은 메달이 예상된다. 축구 영생고와 배구 남성고, 핸드볼 전북제일고, 소프트테니스 순창제일고 등 단체종목은 준결승전에 진출한 상태며, 농구 전주고도 1회전을 가뿐히 통과했다. 또 앞으로 레슬링과 유도,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강선 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은 모든 종목에서 당초 기대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선수들 사기 또한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며 "도민들에게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로 고등부만 치러지며, 전북에서는 46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을 포함한 5개국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 국내외 활동으로 아·태 마스터스 위상 'UP'

대회 조직위,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 16명 홍보대사로 위촉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위원장 송하진)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 1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을 포함한 5개국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재외한인체육단체회

장은 위촉일로부터 대회 종료 시 까지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대회 관련 각종 체육행사 대면 홍보활동 ▲해외 참가자 모집 홍보에 관한 활동을 한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재필리핀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으로서 평소 전라북도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으며, 앞으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하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홍보가 어려운 시기에 해외참가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이번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의 홍보대사 위촉으로 해외참가자 모집 및 해외홍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로,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 “제 꿈은 올림픽 무대, 그곳에서 金 들어올리고파”

전국체전 역도 3관왕 임병진  
인상·용상·합계 모두 金 차지  
순창고, 임 군 외 銅 3개 획득  
출전한 전북 선수단에 힘 보태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이번은 없었다. 한국 역도의 기대주 순창고 임병진(3년)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병진은 지난 10일 안동대 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경기에서 81kg급에 출전해 헤라클레스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임 군은 인상(136kg)과 용상(164kg), 합계(300kg)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북 선수단 처음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임 군의 적수는 없었다. 평소 들어올리는 무게보다도 적게 들어 올렸지만 금메달은 그의 몫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때 역도에 입문한 임 군은 중학교때부터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전국소년체전 3관왕 타이틀도 갖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던 임 군은 이번 전국체전의 성적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삼았다. 앞서 올해 열린 3개의 전국대회에서도 임 군은 모두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체격과 힘이 뛰어난 임 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성실함이다. 훈련을 게을리하지않고 끈기와 집념력이 뛰어나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강도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한국체대로 진학 예정이 임 군에 대해 운상운 감독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며 칭찬일색이다. 이에 따르면 순창이 배출한 이배영(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서희열(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유동주(진안군청)의 뒤를 이을 선수라는 것이다. 윤 감독은 “좋은 성적 뒤에는 피나는 땀과 눈물이 있는데 병진이는 근력과 순발력, 자세, 힘 등 모든 면이 다 훌륭하다”며 “역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육전학원(순창북중·순창고) 류종선 이사장님께 감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고는 임병진 이외에도 역도 명가답게 동메달 3개 등도 획득하며 전북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와 음악의 '만남'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지난 9일과 10일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결선을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했다.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결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36개팀이 킹 오브 더 태권 댄스·와 '얼반(URBAN) 태권 잼스' 부문에 참가했다.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음악에 맞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킹 오브 더 태권 댄스' 부문 초·중등부에서는 'Team MAS'가, 고등·대학·일반부에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고난도 태권도 동작을 구현하는 단체 배틀 형태의 '얼반 태권 잼스' 부문 초·중등부에서는 'WIPTA'가, 고등·대학·일반부에는 '비상 태권도장'이 우승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대회 운영에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지침 준수에 초점을 두었다.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해, 오는 17일에는 KBS 1TV '스포츠 중계석'을 통해 녹화 방송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은 지금 쌍화차의 계절!  
확 달라진 쌍화차거리,  
그리고 정읍만의 특별한 차 한잔!

정읍의 자랑 속지향과  
생강과 대추 등 스물 여 가지 약재를  
사랑과 정성으로 달여  
밤과 은행, 잣 등 고명을 얹으면

정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잔의 보약,  
바로 정읍의 쌍화차입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 쌍화차

맛과 향, 건강까지~  
30년 세월 녹아든  
전설의 쌍화차 거리!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깊은 맛의 쌍화차!  
쌍화차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차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행복~  
따뜻한 정과 감동은 덤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